

음성인식 노트북 컴퓨터 세계 최초 출시

말 한마디로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가 국내 벤처기업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컴팩코리아는 음성으로 인터넷은 물론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음성인식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프리미엄급 노트북 컴퓨터인 '1900-XL164'를 출시했다. 음성인식이 가능한 데스크탑 컴퓨터는 나와 있으나 노트북 컴퓨터가 출시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컴팩코리아는 밝혔다.

이 노트북 컴퓨터는 컴퓨터를 켜 상태에서 'MS워드'라고 말하면 워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이라고 말하면 웹브라우저가 실행되며 '다음'이라고 말하면 다음의 사이트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 다만 이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에 국한돼 있으며 컴팩코리아는 보이스웨어측이 다국어 지원기술을 추가 개발하면 컴팩의 본사를 통해 전세계 시장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직원 7명으로 설립된 보이스웨어는 음성 관련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벤처기업으로 인터넷의 텍스트 문자를 음성으로 들려주는 '음성합성' 기술도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제품가격은 부가세 포함 3백59만원이며 6개월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PC운영체제인 윈도2000 한글판이 출시된 가운데 윈도에 대항하는 운영체제인 리눅스의 국내 대표업체가 리눅스 베타버전을 PC사용자들에게 선보였다.

(주)엘릭스(공동대표 안철수·박홍호)는 지난해 12월7일 회사출범 이후 3개월의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로 개발한 '엘릭스 리눅스 6.2 베타'를 홈페이지(www.allix.com)를 통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국내 리눅스 제품중 베타버전을 인터넷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배포하는 것은 엘릭스가 처음이다.

회사측은 6.2베타버전이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 비해 획기적으로 편리해진 설치환경과 그래픽 기반의 메뉴구조, 완벽한 인터넷 지원, 다양하고 편리한 응용프로그램의 실행가능 등 많은 장점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리눅스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돼온 폰트와 출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눅스용 상용폰트 10종을 장착, 잉크젯이나 레이저 프린터에서 한글과 영문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기존 제품보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다.

6.2버전은 텔넷(Telnet)이나 'FTP', 월드와이드웹(WWW)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통신프로그램이 들어있어 인터넷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며 웹브라우저는 한글 넷스케이프 4.72가 탑재됐다. 이밖에 메모장 기능의 프로그램과 한글 입출력기인 '애미(ami)', 리눅스의 포토샵으로 불리는 '그래픽 프로그램 GIMP1.2', 멀티미디어 MP3 제작기와 플레이어 및 각종 동영상 플레이어 등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이 장착돼 있다.

회사측은 지금까지 매니아들만의 전유물로 인식돼온 리눅스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데스크탑의 운영체제로 실용화되도록 하기 위해 초보자라도 어떤 PC에서든 쉽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제품의 컨셉을 맞췄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리눅스 애호가들이 응용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제품에 'KDevelop'이란 기능을 추가, 리눅스의 열린 정신과 철학을 실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눅스 6.2 베타의 사용환경은 펜티엄급 이상의 호환기종 CPU(중앙처리장치)와 32MB 이상의 메모리 등이며 권장사항은 사운드카드와 랜카드 등이다.

리눅스 6.2 베타버전, 윈도2000에 선전포고

ALLIX alliance for linux software

product download order support company news > attempt

Linux

리눅스 소개
리눅스 통합
국내외 소식

Linux 6.2

Allix Inc. Beta

엘릭스 리눅스 6.2 Beta

- 편리한 설치 환경
- X-Window 환경의 최적화
- 다양한 응용프로그램 지원
- 차별화된 고객 지원

설치방법 보기 >>>

가장 쉬운 리눅스를 자랑하는 엘릭스 리눅스를 선보입니다.

[공지 사항]

- 엘릭스 리눅스 6.2 베타판 무료 배포 안내 (4/1~4/30)
- 엘릭스 리눅스 6.2 출시 일정 관련사항 및 설치 발표 (3/31)

참여 회사

- ▶ 새로 언더원티브
- ▶ 한빛소프트(한빛리눅스연구소)
- ▶ 포스코

인터넷영화관 '인터무비' 개설



외화 수입 배급 및 비디오 제작사인 (주)새롬엔터테인먼트는 인터넷 영화 상영관인 '인터무비' (www.inter-movie.co.kr)를 개설하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새롬측은 '인터무비'를 통해 지금까지 출시한 자사 영화 70여편과 앞으로 출시할 20여편의 중국 영화 시리즈와 국내제작 에로물 등을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찰리 채플린의 단편영화 등 20여편도 소개할 계획이다.

불만 쌓아두지 마세요 ... 고발사이트 '투덜이' 문열어

평소 품고 있던 불만을 마음껏 털어 놓을 수 있는 '불만 고발' 전용 인터넷 사이트가 개설됐다.

(주)클릭나우가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 '투덜이(www.tooduri.co.kr)'는 검색엔진에서 주제별 자료를 찾아가는 방식을 응용, 불만 대상을 국회/정치인, 그룹사/회사 등으로 분류해 검색할 수 있게 한 사이트. 이용자는 언제든지 불만이 있는 대상을 클릭해 들어가 평소 품고 있던 생각을 게시판에 맘껏 띄울 수 있다.

인텔·AMD, 1GHz 이번주 출시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제조업체인 인

텔과 경쟁사 AMD는 차세대 컴퓨터 칩인 1기가헤르츠(GHz) 프로세서를 출시했다.

AMD는 세계 최고속인 1GHz짜리 에이슬론(Athlon) 프로세서를, 인텔은 1GHz 속도의 펜티엄Ⅲ 칩을 선보였다. 에이슬론을 사용한 컴퓨터 저가모델은 모니터를 포함해 최저 2천5백달러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비슷한 1GHz 펜티엄Ⅲ 컴퓨터의 가격은 3천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고성능 칩들을 내장한 컴퓨터 고가 모델은 4천달러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인터넷 어린이교통학교 열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게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 등을 가르치는 어린이 교통안전학교(www.go119.com)가 문을 열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법,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기법, 부모가 알아야 할 교통상식, 어린이 교통안전백과 등을 수록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오지명 시트콤전용 인터넷 방송국 설립

SBS '순풍 산부인과'에 출연 중인 '시트콤의 대부' 오지명씨가 성인 시트콤 전용 인터넷 방송국을 세웠다. 오씨는 3억원을 들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NET2U'라는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해 4월중 공식 오픈할 예정. 오씨는 "TV에서 볼 수 없었던 본격 성인 시트콤을 만들어 방송할 계획"이라며 "폭력, 섹스 등 지상파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소재도 적절히 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바이러스 긴급경보

인터넷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감염을 시키는 인공지능형 웹바이러스가 국내에 상륙, 네티즌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자기복제와 동시에 자동으로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웹바이러스의 국내 상륙을 확인, 긴급경보를 내리고 인터넷 사용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개인사용자

의 피해접수를 통해 국내 상륙이 확인된 VBS는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접속해 있는 개인용컴퓨터(PC)에 침투해 전자우편 주소록에 등록된 주소로 바이러스를 무차별 발송한다. PC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파괴행위는 없으나 과도한 전자우편을 보내 통신속도를 떨어뜨리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킨다. 또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PC의 경우 들어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일반 바이러스보다 피해가 심각하다.

PC사용자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눈에 보이는 증세가 없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힘들다. 현재로서는 백신소프트웨어인 'V3+'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감염이 됐을 경우 PC의 시작프로그램과 윈도의 시스템 폴더에서 'network.vbs'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검사 및 치료용 V3+는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홈페이지(www.ahnlab.com)에서 전송받으면 된다.

북한영화 정보 인터넷에서 얻는다



북한에서 제작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일본 '아시아영상센터'가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회사', '목란비데오회사', '조선국제영화제작소'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지난 해 개설한 홈페이지 '조선영화시리즈'(www.tangun.co.jp)에서 북한영화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 '영화사정'란에서는 지난 98년 79세로 숨진 북한 최고의 인민배우 유원준과 현재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장이기도 한 인민배우 엄길선(66), 남한에서도 방영됐던 영화 '임궏정'의 인민배우 최창수(58), 지난 98년 북한에서 인기를 모았던 영화 '줄기는 뿌리에서 자란다'로 공훈배우 칭호를 받은 리영호(37) 등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여자 배우로서는 영화 '도라지꽃'의 인민배우 오미란(46)과 '조선의 별'의 인민배우 김정화(46), 지난 해 82세로 세상을 떠난 인민배우 문예봉 등의 사진도 올라 있다. 특히 최근 북한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여자 배우들인 김경애(27), 김련화(31)의 인사말도 동영상상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다. '영화사정' 아래 '촬영소' 항목에서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군 소속인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아동용 만화영화와 인형영화 등을 제작하는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등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도 '작품목록'란에는 주요 영화의 목록과 제작연도, 출연배우, 줄거리 등을 정리해 놓고 있다. 북한영화에 대한 정보는 '조선인포뱅크'(http://www.dprkorea.com)에서도 제공하고 있지만 1년 회비 미화 2천달러를 내고 가입한 회원에 한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에 자리한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고 있으며 단체로 신청(02-730-6658, 팩스 02-725-5752)할 경우 수시로 북한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북한자료센터에서는 부산, 광주, 대구, 전주 등 지방에서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신청한 장소에서 분기에 1회 이상 북한영화를 상영한다.

손정의씨 2억여달러 추가 투자

세계적 인터넷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사장이 연말까지 국내 벤처기업에 2억4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한다. 소프트뱅크코리아(SBK) 이홍선사장은 "올 하반기 중으로 3억달러(약 3천3백억원) 정도의 2차 펀드를 조성, 국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갈 방침"이라며 "펀드는 소프트뱅크 80%, 나래이동통신, 삼보컴퓨터 등 다른 참여업체 20%의 지분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사장은 "지난해 말 손사장이 발표한 1억달러 투자 업체 선정을 당

초 일정보다 앞당겨 상반기 중에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인구 1천3백만 육박

국내 인터넷 이용인구가 1천3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는 2000년 2월 29일 현재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1천2백97만명으로 지난 1월 1천1백34만명보다 14.4%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개월간 평균 6~7%대의 증가세를 보이던 인터넷 이용인구가 지난 2월 급증한 이유는 xDSL의 가입자수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xDSL 가입자는 ADSL 가입자수 증가에 힘입어 전월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27만5천7백39명으로 급증했으며 PC통신 가입자수도 12.4% 증가한 1천2백18만1천9백93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 C클래스 IP 보유수도 2만8천3백44개에서 3만1천4백16개로 증가했고, kr도메인수는 전월 23만4백20개에서 29.3% 증가한 29만7천9백9개로 늘어났다.

전체 도메인 중 기업도메인인 'co.kr'은 24만2천7백11개로 전월 18만1천5백50개보다 33.7% 늘었으며, 개인도메인 'pe.kr'은 전월 3만4천6백3개에서 3만7천52개로 7.1% 증가했다.

중앙선관위는 4·13 총선 입후보자들의 납세실적, 전과기록, 병역, 재산 등 선거법에 규정된 개인신상 자료를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일(3월28, 29일)을 전후로 후보들의 자료가 공개돼 시민단체 등의 검증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유권자나 시민단체,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 정보라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확인 과정을 거쳐 인터넷에 공고한 뒤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발할 방침이다. 또 전과기록의 경우 검찰에 우선적으로 사실 여부를 조회한 뒤 그 결과를 게재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보화 추세에 맞춰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선거정보를 공개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후보자 재산사항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미 관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현역의원이나 1급 이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기공개'로만 표시할 방침이어서 형평성 시비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초대형 인터넷 연합체 '예카' 공식 출범

국내 인터넷업체 1백17개사가 참여하는 초대형 인터넷 연합체 '예카'가 공식 출범했다.

(주)한글과컴퓨터(대표 전하진)는 한번의 로그인으로 회원업체들의 모든 서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예카를 출범시켰다.

예카에 참여기로 한 업체는 네띠앙과 드림라인, 메디다스, 무한기술투자, 비트컴퓨터, 삼성에버랜드, 심마니, 하나은행, 하늘사랑, 현대멀티캡, LG텔레콤, 한국오라클 등 모두 1백17개사에 이른다.

전하진사장은 '기존의 포털이나 허브사이트가 신규 콘텐츠 첨부나 사이트 링크에 그치는데 비해 예카서비스는 회원사들간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정보분석을 통해 거대한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회원등록 희망자는 예카의 안내사이트(www.yeca.com)를 이용하거나 각 참여사들의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는 예카 서비스를 승인하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④7

총선후보 신상 인터넷에 전면 공개

